





## 설교

## 주를 바라봅니다 (히12:1~2)

[히브리서 12장 1-2절]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나교회 김병상 목사

언제부터인가 ‘코드’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코드 인사’죠. 모든 사람과 함께 의논하고 일해야 하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 생각이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코드’가 무엇인가요? 같은 생각과 삶의 선상에 있느냐는 것이죠.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 코드를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이지요. 그 코드를 맞추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코드의 방향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변화산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코드를 맞추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겠지요? 많이 떠돌던 이야기니까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와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개와 달리기를 하는데 지는 걸 보니, ‘개만도 못하네’

이 소리를 듣고 이 남자는 열심히 달렸습니다.

개와 달리면서 이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보다 낫네’

이 소리를 듣고는 기분이 나빴던 이 사람은 이제 개와 똑같이 달리기 시작합니

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개 같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이 되면, 무엇을 하든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었습니다.

주변의 눈길보다는,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했던 사람들.

자신의 자존심보다는, 긴박한 열정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움직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나요?

올 한 해는 계속해서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반기 변화산을 시작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삶에는 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올바른 결심이 되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결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기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부터 여섯 가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먼저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흥미롭게 보았던 것은 ‘바라보자’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는 말로 표현된 것입니다.

단순히 바라보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자는 ‘외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제 마음에 ‘fix’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삶과 신앙에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사람의 소견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누군가의 명령에 따르거나 조정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과 명령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의 명령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휘관은 모든 현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은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적군과 싸움을 하지만 지휘관은 보이지 않는 적의 동태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전자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파를 교란해 지휘부와와 교신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하게 훈련을 받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지휘부와의 교신이 끊어지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포가 무서운 것은 두려움으로 인해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포가 들어오면 공포로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저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의 눈을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온 정신을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은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을 들으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 결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승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역사가 있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항우와의 기나긴 싸움을 통해 결국을 패권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초한지에 나오는 항우와 유방의 기나긴 싸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제거할 목적으로 ‘홍문’에서 연회를 엽니다. 죽음의 자리죠. 그때 유방의 책사인 장량은 어떤 수모를 당하더라도 참으라고 합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천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유방은 자기 힘이 아니라 자신을 돕는 장량과 한신 번째와 같은 영웅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연명합니다. 항우와 유방의 마지막 싸움인 ‘해하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기나긴 8년간의 싸움에서 항우는 늘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통일하고 한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황제가 된 사람은 항우였습니다.

항우에 대한 리더십 연구가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항우는 귀족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역발산기개세라 불리던 항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지요. 그는 눈앞에 보이는 전투에서 승리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 꿈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수치를 참을 수 있었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그렇게 사셨고 승리하셨

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과 ‘경주’라는 말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해 국가대표 출신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대표 시절에 대표적인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여줬던 이영표 선수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허무하고 우울증에 걸릴 것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 왔던 신앙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 어떤 분을 통해 매일 말씀을 보내는 엽을 내려받게 되었고, 어느 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갑작스러웠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에게 들려진 음성이 단체 메시지를 통해서 올 수 있는냐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자신이 읽던 성경을 보니, 영한 대조로 되어 있어서 종종 줄이 안 맞을 때가 있는데, 자신이 읽은 부분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아니라, 7장 10절이었던 것이죠.

너무나 놀란 순간이었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여러분을 향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그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요? 그것이 변화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은 경주(競走)다!

신앙생활은 경주(競走)다!

## 기록일보

www.christiandaily.co.kr

사장발행인 김광수	일반편집장 장세규	교계편집장 김규진
136-075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739-8120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년 180,000원 / 6개월 90,000원 / 1개월 15,000원	광고 및 구독문의 070-4352-2480 대표구좌 SC은행 130-20-571787 우리은행 1005-301-884992	
미주 기록일보 www.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록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My KIDS**

지구를 나누면 세계 참된, 나의 깊은 마음을 Facebook에 담아주세요

My Kids 찾기, My Kids 쓰기, My Kids 공유하기, My Kids 알림

**지구촌 어딘가에 있을 나와 꼭 닮은 아동을 찾아보세요!**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을 나의 손 끝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MY KIDS 참여인 참여방법!**

1. 검색창에 '월드비전 마이키즈'를 검색해주세요.

월드비전 마이키즈

2. 모바일 앱 mykids.vv.or.kr로 접속해주세요.

mykids.vv.or.kr

3. 월드비전 Family Card와 함께 아동 정보카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며 생활을 보내거나 아동을 키우는 지역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전 1회 아동건강검진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 월드비전 후원금으로 아동건강검진을 통해 아동의 건강, 보건, 교육, 의료 및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7. 아동후원은 한 아이의 미래를 나의 손으로 지켜주고, 한 아이의 희망입니다.

홈페이지 [www.worldvision.or.kr](http://www.worldvision.or.kr) 후원 문의 및 신청 02-2079-7000



보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신앙을 경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경기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렸을 때, 자치기를 하고 팡파르막기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땅을 따 먹습니다. 때로는 잘못금을 그었다고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당장 사생 결단낼 것처럼 치열하게 경기를 하지요.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립니다. “병삼아! 어서 들어와 밥 먹어야지.”

그러면 그 치열했던 싸움터가 바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그 금을 다 지우고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경주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주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빨리 그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만나교회 목사로서 시무하는 한 집을 소유하지 않는 목회자가 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소유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많은 교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를 옹매이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매이기 쉬운 죄를 벗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사안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경주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는 말처럼 비신앙적인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발가벗고 자는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의 수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하던 아들의 자손이 저주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불끈 솟는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 판을 던져 깨뜨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므로 인하여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노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쉬움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므로 인하여, 삶의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칼부림하며 피를 흘리는 참상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인생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고, 제 자식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온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엔가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결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결단 때문에 우리가 치려야 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역설이 있지요. 신앙인의 승리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 많고, 땅 많고, 권력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최후에 증명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결코 순례자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찬 좋은 찬양인데, 우리가 바라던 시온성을 바라며 신앙을 지켰던 신앙 선배들의 고백인데, 요즘 잘 부르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사는 삶이 최선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 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 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의 경주는 릴레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경주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단지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것이 웬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일 우리가 사는 인생과 경주가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경기하지 않게 하시고 불공평하게 경주를 하게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을 경주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의 경주가 릴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의 구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시대마다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몹시 어려운 코스를 지나가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구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경주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작년 브라질의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 중의 하나가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였습니다. 그는 세 가지 종목을 3번의 올림픽에서 우승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저에게 인상적인 것은 그가 400m 계주에서 늘 마지막 주자로 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마지막을 제일 잘 뛰고 역전을 만들어 낼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 올림픽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미국 선수들의 계주였죠, 그들

은 최고였지만 늘 ‘저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통을 터치할 때 꼭 실수하는 것이죠.

릴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구간을 가장 성실하게 뛰어야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담당할 그 구간,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구간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임은 무엇입니까?

“책임”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responsibility”인데, ‘대답한다’라는 “response”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올림픽 400m 계주경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스타트를, 결정적인 승부수를 피어야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자에게 승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무거운 시험과 책임을 진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영광도 많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릴레이는 세상의 경주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릴레이는 얼마나 유능하게, 빨리 달렸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경주의 1등은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달렸느냐의 문제요, 최선을 다한 사람이 모두 1등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번 신앙적인 물음을 물어봅시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민족을 바라보며 맡겨진 책임 구간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 구간이 무엇인가요?”

“가장 성실하게 제 책임을 완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내가 달려가야 하는 구간은 나의 욕심으로 가는 구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잠언의 아들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나의 구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물을 수 있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이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 구간이 있다면, 그다음 사람에게 우리의 바통을 넘겨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릴레이는 잘 넘겨진 바통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뒷사람이 잘 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경주는 함께 달려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영광스러우려면 나의 다음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욱 기뻐해야 하고, 그다음 사람의 건투를 빌어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믿음의 유산을 안고 갑니까?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마지막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당신이 죽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당신 때문에 하늘나라에 오게 되었는다고 감사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의 신앙의 유산으로 서 있다면, 또한 그 신앙의 유산, 바통을 넘겨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월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일입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할아버지 1명, 할머니 1명, 초등학교 2명이 앉아 있는 모습에 실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10명 이상 모이고, 주일 학교가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 50명이 넘어가고, 어른들이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당시 신학생으로 있던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그때의 일이 전설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모인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때, 내가 잘해서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그곳에 가기 전 전임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 있던 전도사들이 40일씩을 교회를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만심이 싹 없어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얻은 것이 없이 떠나갔지만, 그때 그 기도의 씨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지금 나는 사람들 보기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고 심고 가꾸어온 수고자들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만나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전 세대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교회가 설 수 있었을까? 얼마 전 천호제일교회 기획위원들에게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 강의하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교회가 바뀌고 새로워져야 한다면 우리는 됩니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희생하고 나를 내놓아 주는 것이 지금 세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는 세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유감없이 다음 세대에 책임을 넘겨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하고,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에게는 누가 열매를 거두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맡겨진 구간을 맡은 이가 잘 달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앙모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앗의 기적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알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미련 없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헌신이 없다면, 다음 세대의 열매도 없습니다.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전화를 받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 똑똑한 금융

##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 우체국 예금



